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5
----------	------

발의연월일 : 2024. 8. 6.

발 의 자 : 서영교 · 박희승 · 이용우
진선미 · 이해식 · 임오경
박지원 · 윤준병 · 백승아
박홍배 · 한정애 · 이성운
이훈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이후 발각되어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편법인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공론화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편법이 널리 공개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 및 처벌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제1항제3호 중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제2항 중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사람은”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p>4. ~ 20.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148조의2(벌칙) ① (생 략)</p> <p>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u>음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u>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 ④ (생 략)</p>	<p><u>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경우</u></p> <p>4. ~ 20.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8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음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사람은-----.</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